

#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 이튼타운 한인 천주교회, 본당 설립 40주년 감사 기념 미사 봉헌



이튼타운 한인 천주교회 본당 설립 40주년 감사미사를 마치고 장재명 주임 신부와 성가대가 함께하고 있다. 이날 본당의 전신자들이 봉헌한 본당의 발전과 일치를 지향 묵주기도 일만단 장미(오른쪽).



해로 선포하고 이를 위해 영성 강좌를 시작했으며 또한 본당의 전신자들은 본당의 발전과 일치를 지향으로 묵주기도 일만단을 봉헌하고 있다.

정인에 사목회장은 미사 후 “그동안 하느님께서 우리 본당에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40주년 감사미사를 시작으로 새로운 50주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를 계기로 본당 공동체가 주님안에서 일치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앞으로의 새 여정에 더 많은 교우가 참여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자.”고 소감을 말했다.

기사/사진 제공: 이훈희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뉴저지】 이튼타운 한인 천주교회(주임 장재명 파트리치오 신부) 본당 설립 40주년 감사 미사가 지난 17일 50여 명의 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봉헌되었다. 미사 강론에서 장 신부는 “1984년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에 본당 설립 미사를 봉헌한 지 40년이 흘렀다. 이 시간까지 본당 공동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섭리와 크신 은총 그리고 본당 주보이신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전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희생덕분이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미사를 봉헌하자”라고 했다. 이어서 우리 공동체는 지금도 앞으로도 성모님의 신앙을 배우고 닮아 성모님처럼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본당 설립 첫 미사를 집전했던 최봉원 야고보 신부는 이날을 이렇게 회상했다. “이날 우리는 모두 감격에 겨워 눈물의 흘리며 기뻐했으며 그동안 목말랐던 신앙의 갈증을 마음껏 풀었으며 신앙의 배고픔을 충만히 채웠습니다. 봄의 따뜻한 햇살이 하느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며 힘차게 거룩하게 시작했습니다.” 설립 미사를 공동 집전했던 고 박창득 몬시뇰은 “당시 이곳 신자들이 한국어 미사를 하고자 하는 열성은 너무 간절한 것이어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 할 수가 없었다. 이날 제가 최 신부와 이튼타운 성당 신자들과 첫 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교우들의 열성 때문이었다.”라고 회고했다고 전했다.

장 신부는 박 몬시뇰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는 본당 설립을 위해 애썼던 선배 신앙인들의 열성이 얼마나 컸었는지 짐작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분들의 열정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본당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해 준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본당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는 지난 40년을 회고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10년을 보다 좋게 계획하고 전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며 이를 위해 요한 복음 17: 20-26을 인용해 본당 공동체는 하느님의 안에서 서로 일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성체 예식을 마친 후 성가대 특송이 있었으며 40년의 발자취를 기록한 영상 상영이 있었다.

이날은 장 신부의 영명축일이어서 사목회장 정인에 프란체스카의 꽃다발 증정과 성가대의 축송이 이어졌다. 미사 후 친교실에서 축하 케이크 커팅이 있었으며 전신자가 함께식사를 했다.

장 신부는 본당 설립 40주년을 영성의

### 서울대교구 총대리에 구요비 주교 임명



서울대교구 총대리에 구요비 주교(사진)가 임명됐다.

서울대교구는 14일 구요비 주교를

총대리에 임명하는 등 보좌 주교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총대리가 맡아온 (재)가톨릭평화방송 이사장과 (재)바보의나눔 이사장도 구 주교가 겸임한다. 또 중서울지역담당·수도회담당·해외선교담당 교구장대리, 순교자현양위원회·시복시성위원회·생명위원회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위원장, (재)한국교회사연구소 이사장도 맡는다. 도재진 기자